

혁명적인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시위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인 어느 11월 25일, 미라발 세 자매(Mirabal Sisters)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 정권에 의해 처형되었다. 미라발 세 자매는 정의를 위해 저항 투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의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살해되었다.

오늘날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제국주의적 의제란 곧 전쟁, 식민지화, 자본주의로, 이들은 통상 금지 정책, 독재자 지원, 국경 제도, 추방 정책, 강제 재이주와 점령, 그리고 토지와 사람들의 자원을 강탈하는 채굴주의를 통해 이행된다.

백인 우월주의적 제국주의는 전쟁 및 점령, 강제 수용소와 유혈 국경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 그들은 무기를 수출하고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 그들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부자가 된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착취하는 것이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 같이 외치자!

사우디 군대가 예멘에 투하한 폭탄은 미국과 영국이 만들었다.

아프린 지역에 들어간 소위 터키 탱크는 독일이 만들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탄은 미국과 유럽이 자금을 지원했다.

카불과 칸다하 거리의 피는 유럽의 지원으로 발생했다.

바레인, 멕시코, 브라질과 방글라데시의 시민 사회와 반정부 세력을 노린 스파이테크(Spy-Tech)는 이스라엘이 만들었다.

리비아의 수용소와 유럽연합 국경의 난민을 향한 잔인한 푸시백(Push-Back)은 유럽연합에 의해 지원받는다.

우리 국제주의 페미니스트 연대는 자기 조직과 자기 방어가 제국주의, 파시즘,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힘이라 믿는다. 오직 국제주의적 저항만이 식민지 국경과 제국주의적 의제를 종식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고, 전 세계 속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함께 서 있다. 왜냐하면 한 자매의 투쟁은 모든 자매들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모든 여성, 특히 언제나 투쟁의 선봉에 서는 트랜스 여성, 노동자 계급 여성, 장애인 여성, 난민 여성, 흑인 여성, 선주민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에게 경의를 표한다.

국경을 초월한 우리의 결단과 자주, 저항을 보여주자.

장소 : Eastgate 앞 (S-Bahnhof Marzahn)

일정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시스젠더 남성은 이 집회에 참여하지 마세요.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적인 액션을 취해주세요.

++각자 구호와 팻말을 가져오세요!